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해서 차원 높여 나와야

29면에서 계속

자유자재권을 인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는냐는 요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러 나오지 못했다 하는 건 평계입니다. 돼지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 둘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떠한 꿈을 꾸더라도, 어떠한 귀신이 나오더라도, 또 산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러로 들어가면... 즉 말하자면 마음은 하나인데 내 분신을 이 허공에 꼭 차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속으로 들어가야 할 힘을 느끼지 않고 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마라도, 악마의 왕이라도 내가 그러로 들어가서 악마의 왕이 된다면 그런 것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로 하여금, 즉 말하자면 부처님의 분신으로 하여금 천차만별의 가지가지 건지게 하는 것이죠.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잘못되고 잘못된 걸 모르는 사람이나 악마에게는 무조건입니다. 남을 해하는 거를 일삼아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만 하나가 되고, 열 개라면 열이 되고, 백 개라면 백이 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이, 이 공부를 하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진리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과학이며, 그대로 의학도 되고, 천체물리학도 되고 철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모습은 옷이 때문에 한 질 지나면 벗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자유권을 가지고 이 공기 주머니 벗어나서 들고 날 줄 안다면, 들고 날 줄 안다면 죽어서도, 옷을 벗고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입니다.

지금 '원을 세운다' 하는 것과 '원심력을 기른다'는 것에 대해 생각들이 다릅니다. 원을 세운다고 말하지만 이미 원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세운다는 것은 주인공을 내가 하나 세웠다 겁니다. 공이라고 그런 뜻은 됩니까? (주먹 쥐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시며) 바로 몸과 그 불성의 기둥, 그렇게 말해도 되고 정신계와 물질계, 이렇게 말할 수도 되겠죠. 공했다! 그랬으니까 주인공 공에다 모든 것을, 일체를 내 탓으로 돌려서 다 놔라. 돌 아나게 거기다 놓아라. 오늘 왜 법사 스님과 내가 법문을 이렇게 양면으로 들려 주었을까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리로 기울어져도 아니 되고 저리로 기울어져도 아니 되는 까닭에, 이 양면을 다 놓

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야 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상으로, 관 속으로 들어가는 놈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세상의 맛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 세계에, 저승길로 들어가는 길이요, 과거에 죽은 사람의 이치를 모른다면 지금 산 사람을 어떻게 건지

죽어야 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상으로, 관 속으로 들어가는 놈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세상의 맛을 보겠습니까.

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과거로부터 죄를 짓고 나와서 산다. 그런데 아주 고통스럽다. 이럴 때는 과거로 돌아갈 줄 알아야 그것을 지우고 다시 나오죠.

그리고 공부들 하는데 '비구니까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러겠지만 비구니든 비구든,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습은 보지 말라. 모습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까닭에 어떤 걸로 바뀌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다 남자다 따지지 말라. 모습은 각각이나 마음이야 어찌 같지 않으리." 이 문

제 등등을 잘 생각하신다면 고통스럽다가보다도 이렇게 살면서도 극락으로 사는 묘미가 있다 이 소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극락으로 살 수 있는 까닭에 옷을 벗고도 극락세계에서 또 여러분을 부지런히 건져야 하겠죠. 미생물에서부터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아님이 없었으니까요.

어떠한 걸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따르마로 보진 마세요. 모두 이 불기등 하나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아까 육조 스님 얘기했죠.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여여하게 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말은 조금 달라도 그전에 나도 그런 말을 하고 갔지만, 육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근래에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육조 스님과도 돌이겠습니까? 일체제불과도 돌이 아니죠. 진리는 하나지 둘도 아니요, 진리는 공한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써 끝마칠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자에게) 바짝, 편히 앉아요. 편히 앉으니까요. 다리 안 아프게 해 줄 사람이 따로 없어요.

질문자(남): 스님, 저는 지금 심등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스님께 세 가지들 여쭙고 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한 2, 3년 전부터는 정신과학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정신과학에 대해서 저희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되고 있고, 특히 중국 경우에는 기공과학이라고 하고 인체과학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나와서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공계를 예로 들자면, 매일 수련하는 사람이 3백만 이상이 되는 걸 중국 심대 기공이라고 말하는데, 벌써 심대기공만 해도 중국의 3천만 인구가 매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수행법, 기공이나 인체과학들이 도교나 혹은 불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교에서 나온 가르침을 전하는 분들도 어디 마음의 본자리가 하나지 둘이나 그러면서, 불심이나 도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나 같은 자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초능력들을 보여 주면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과학자가 연구해야 되고 이러한 과학들을 연구하는 나라가 앞으로 강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도 벌써 수천만 이상이 수행을 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소림사에서 나오신 '엄신'이라는 분이

미국에 한번 다녀가고 나서요, 대단히 많은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분이 소림사에서 배운 수행법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조류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미래의 국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어떤 학문으로서 자리잡고 그 나라의 국력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스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 놓고 일임하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 세계, 저승길 들어가는 길이에요. 죽은 사람의 이치를 모르고 산 사람을 어떻게 건지니까.

큰스님: 그것은 전체 무(無)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하는 그런 일과는 달리 한 발 내려놓고 이보(移步)의 경계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기공이라든가 또는 무술이라든가 하는 전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들을 두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주인공에다 다 일임하면서 연구를 하되 거기서 다 연구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돌이 아니게 통할 수만 있다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고 날면서 그렇게 몸으로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뭉둥이를 들고 와서 때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차례차례 걸려서 나오는 자기의 운명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로켓트가 다니고 이러한 시대에 그것을 그렇게 몸으로 한다고 얼마나 막아지겠습니까?

로켓트가 잘못해서 우리 전체를 죽일 수 있다 이리한다면 내가 로켓트가 돼야 하고, 물에 들어가면 내가 용신이 돼야 하고, 어떠한 혹성이 우리 지구에 와서 부딪친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그 혹성이 돼야 하고... 이러한 문제 등등이 헤아릴 수 없는데, 기공 같은 것은 지금 요 뭉둥이가 사는 동안만 배워서 하는 거뿐이죠.

내가 지금 이끌어 가는 거는 세계생애에 끝없이, 우주에 발판을 두고서 과거 미래 현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한다 못한다, 배운다 안 배운다 하는 것보다 뇌야 되죠. 부지런히 뛰어서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불성인 주인공이 바로 자기 뭉둥이를 움직여 거기에 해서 하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뭉둥이 속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가 자기가 했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수박 겉을 훑는 격이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박의 맛을 봤다고 하겠습니까?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선원에 나온 지는 한 4, 5년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시간을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많지만 사무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의문 났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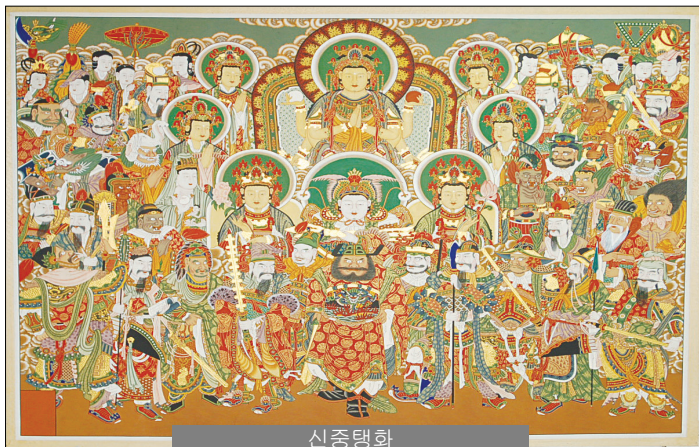
한 가지는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의 가르침대로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껴졌던 거는, 결국은 이 주인공을 붙잡고 가는 속에서 점점 저를 안으로 매진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이 선원에 오기 전에는 밖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좀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밖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안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7년 10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 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 <본초강목>, 허준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균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할,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절,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 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 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 비취 : 수지처리
 - ▶ C 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